

교회 목표

신뢰한 예배
전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간처: 서울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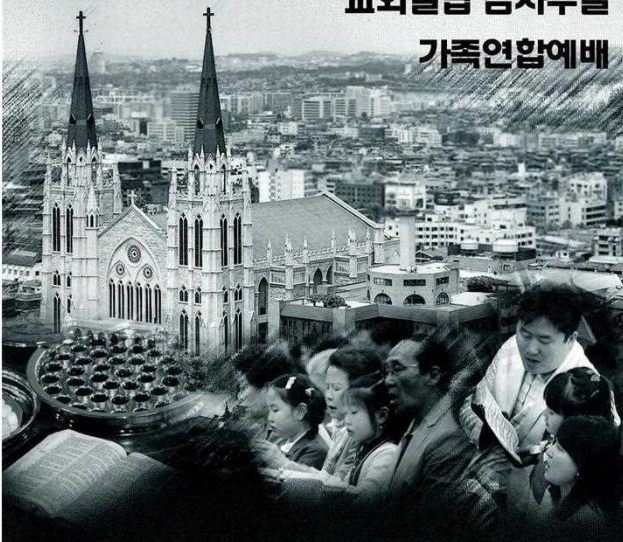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웅

교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일 제6차 성찬식

교회설립 감사주일

가족연합예배



째는 듯한 무더위로 분주했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새벽녘에는 찬바람이 솔솔 불고 있습니다. 또한 한여름, 복음 안에서 심의 은혜를 누렸던 우리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를 잊고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라는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지금 곧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주일은 교회설립 57주년 감사주일로, 2010년 제6차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3부예배 시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예배 시에는 특별찬양(가브리엘·임마누엘 찬양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남긴 흔적이 어떠한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18:13). 다음 주일, 온 성도도 교회설립을 기념하며 죄인들의 교회, 죄인들의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외)

바울의 여행 계획

(로마서 15:14~33)

이제 바울에게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그의 계획을 알리고, 또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바울은 다시 한 번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로마 교회는 비교

적 작 하고 있는 교회로서 권고의 말이 별로 필요 없다고 시작한다(롬 15:14).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로 로마 교회가 이 정도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한, 교회는 서로 서로의 권고와 또 기억나게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빼놓을 수 없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서신을 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롬 15:15). 이 특별한 사명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직분이다(롬 15, 15:16). 이 직분이야말로 바울이 감당해야 하는 엄청난 사역이다. 바울은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 것이라고 설명한다(롬 15:17~18).

바울에게 맡겨진 사도의 직분 안에는 그의 사역의 우수성과 제한성이 함께 놓여 있다. 그의 사명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펼쳐진 우주적인 사명이다. 이를 위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루까지 복음을 전파하였고(롬 15:19), 더 이상 그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었다. 이제 바울은 방향을 바꾸어서 서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서바나(스페인)가 있었다. 바울은 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였다. 그렇지만 동쪽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은 정말 끝났는가? 바울은 동쪽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들은 아직 바울의 도움이 필요한 개척 교회였기에 그가 굳이 서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과 다른 사역자의 사역에는 다른 점이 있다. 바울의 사역은 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다(롬 15:20). 이와 같은 그의 사역은 성경에서 찾은 답이었다(사 52:15; 롬 15:21). 바울은 각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다고 믿었다고(고전 3:6~7).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이루시는가’였다(고전 3:10).

바울은 터를 닦아서 기초를 놓았다. 기초가 세워지고 그 도시에 교인이 모여들고 그들로부터 빛이 흘러나와 주변을 밝히게 될 때에 바울의 사역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는 나무를 심었다. 이제 물 주고 가꾸는 일은 다른 사역자의 몫이다. 기초를 놓았으니 그 위에 빌당을 세우도록 그는 그 곳을 떠나야만 한다. 부지런히 터를 닦아 새신자들이 모이도록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바울의 몫이었다. 온 세상이 그 앞에 있으며 새 사역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서바나를 향하여 가게 하는 동기요, 또 그가 감당해야 할 직분이었다.

바울은 서바나로 가는 도중에 로마를 방문하여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사역을 준비하려고 했다(롬 15:24).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도들의 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이행하기 위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다(갈 2:10). 이 일을 위해 바울은 많이 수고하였다(고후 8:14~15, 9:6~8). 바울은 교회 구제를 위한 헌금을 동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롬 15:26~27). 오히려 이방인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겼다(롬 15:28~33).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로마 교회도 이에 동참하였으며 그들이 동참한 사역의 아름다운 결과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었다. 바울의 전도여행이 모든 자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줄 것이다. 아멘.

9월 교회일정

5일 (주) 교회설립 감사주일, 제6차 성찬식, 가족연합예배(2·3부예배)

8일 (수)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21일 (화) 외신부 수련회(22일까지)

LORD'S SUPPER

⁽⁷⁾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Or where can I flee from Your presence?

⁽⁸⁾If I ascend to heaven, You are there; If I make my bed in Sheol, behold, You are there. ...

⁽¹³⁾For You formed my inward parts; You wove me in my mother's womb.

⁽¹⁴⁾I will give thanks to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Wonderful are Your works, and my soul knows it very well. (Psalms 139:7~14)

Today's passage focuses on God's love for you and His presence everywhere in your life. Wherever you go, you cannot escape God's presence and love. "Where can I go from Your Spirit? Or where can I flee from Your presence? If I ascend to heaven, You are there; if I make my bed in Sheol, behold, You are there"(Ps. 139:7~8). As a Christian, you come to the Lord's Supper confessing your salvation. Jesus gave you everything! He poured out His blood and sacrificed His body to cleanse you from sin and make you a part of God's family. When troubles become urgent or when you get off track, you don't need to worry because Jesus is there. He meets you wherever you're at, no matter what. Let's look at a few weak individuals during their troublesome times to see how God carried them through.

Jacob, the liar, escaped from his brother's wrath by fleeing to another land. He tried to get God's blessing by cheating. He tricked his father into thinking he was Esau, and his father gave him Esau's blessing, which of course made his brother want to kill him. His parents quickly sent him to a far-away relative, and on the first night of his lonely journey he had to use a stone for a pillow on which to rest his head. As he tried to sleep, deep inside he cried out to God and God met him there. "He was afraid and said, 'How awesome is this place! This is none other than the house of God, and this is the gate of heaven.' So Jacob rose early in the morning, and took the stone that he had put under his head and set it up as a pillar and poured oil on its top"(Gen. 28:17~18). Wherever Jacob went, God was there. Even in the lonesome outdoors, Jacob found comfort in God's house. Let's remember. "If I take the wings of the dawn, if I dwell in the remotest part of the sea, even there Your hand will lead me, and Your right hand will lay hold of me"(Ps. 139:9~10).

Isaiah was a servant of God. As he mourned the death of King Uzziah, God came to him in the Temple in Jerusalem. Isaiah cried out. "Woe is me, for I am ruined! Because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live among a people of unclean lips; for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of hosts"(Is. 6:5). Even a holy man in the presence of God is dirty. God cleansed Isaiah. "Then one of the seraphim flew to me with a burning coal in his hand, which he had taken from the altar with tongs. He touched my mouth with it and said, 'Behold, this has touched your lips; and your iniquity is taken away and your sin is forgiven.'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Then I said, 'Here am I. Send me!' "(Is. 6:6~8). God's servants may think they are good, but they are not. Even though Isaiah was dirty, God still was there, and He still used him. Let's remember. "If I say, 'Surely the darkness will overwhelm me, and the light around me will be night,' even the darkness is not dark to You, and the night is as bright as the day. Darkness and light are alike to You"(Ps. 139:11~12).

The Emmaus disciples had worked with Jesus for three years. After Jesus was crucified, they journeyed home in a deep depression. As they were walking back to their village and talking about Jesus. "Jesus Himself approached and began traveling with them"(Lk. 24:15). He explained to them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in all the Scriptures(Lk. 24:27). He even went into their home and sat at their table. "When He had reclined at the table with them, He took the bread and blessed it, and breaking it, He began giving it to them"(Lk. 24:30). These disciples were headed in the wrong direction, but Jesus stepped in and opened their eyes. He pointed them in the right direction. Let's remember. "For You formed my inward parts; You wove me in my mother's womb. I will give thanks to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wonderful are Your works, and my soul knows it very well"(Ps. 139:13~14).

The confessed liar, holy servant, and dedicated followers of Jesus all met the Lord in different places: Jacob was outside, Isaiah was in the temple, and the Emmaus disciples were home. The common or interesting point between all three was their urgent need of help. Everyone experiences depressing times, but God continues His friendship. Jesus said,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Mt. 4:19). He also said,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 will come to you"(Jn. 14:18). And too, He promise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1 Jn. 1:9). What blessings! Today is our church's anniversary and we have the privilege of partaking in the Lord's Supper together. Jesus asks us to do this in remembrance of Him.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1 Cor. 11:24~25). Where are you going to go? Wherever it may be, Jesus is still there. Come to Jesus, and even during your most urgent needs He will reach you. Amen. 

주의 만찬



김성관 목사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이다 (시편 139:7~14)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인생 여행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시 139:7~8).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주의 만찬에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를 쏟고 자신의 몸을 희생시킴으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거나 혹 여러분이 제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문제를 겪고 있든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고난의 시간에 그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내게 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자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의미의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 타지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속임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애썼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을 예서라고 속였고, 이삭은 예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서는 야곱을 죽일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황급히 그를 먼 친척에게 보냈고, 그는 낯선 땅에서 외로운 첫날 밤을 보내며 돌을 베게 삼아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잠을 청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곳에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마니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창 28:17~18).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 곳에 계셨습니다. 인적조차 드문 노지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새벽 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시 139:9~10).

하나님의 종 이사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웃시야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는 부르짖었습니다. “화로다 나의 땅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사 6:5). 아무리 경건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깨끗케 하셨습니다.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첫갸갓으로 제단에서 짐은 바 편 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

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사 6:6~8).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들이 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사야는 부정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고 여전히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시 139:11~12).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깊은 절망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눅 24:15). 주님은 성경에 쓰인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눅 24:27). 주님은 그들의 집까지 들어가셔서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눅 24:30). 두 제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에 개입하셨고 그들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니이다”(시 139:13~14).

모두가 인정하는 거짓말쟁이, 경건한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 헌신했던 두 제자. 이들 모두는 각각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엠마오의 제자들은 집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흥미로운 공통점은 이들 모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8).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특권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자신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 11:24~25).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곳이 어디든지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아멘. ■

메시아의 죽음 42

마지막 만찬 중 성찬식(부정적)

우리는 성찬식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성찬식 속에서 부정적인 것이 분명히 나타나

고 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관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성찬식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냄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찬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고 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막 26:26~28). 하나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놀라운 복음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찬식에 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 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승리를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막 14:25).

성찬식을 통하여 예언된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아무도 예수에게 힘이 되어 주지 못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지주 받았따(막 27:46 ; 막 15:34). 심지어 하나님으로 부터까지 외면을 당했다. 그와 함께 그 십자가 위에는 어둠이 임하였다(막 15:25,33). 이 십자가의 길을 성찬식이 말하고 있기에 인간의 모습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자들이 그러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동일하게 그러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정적인 모습은 어떤것인가?

성경은 세 부류의 모습을 말해 주고 있다. 먼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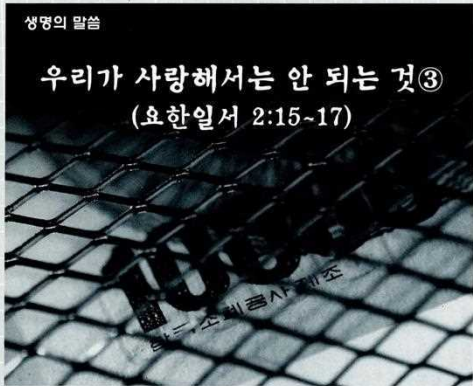
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막 14:27)는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막 14:29~30)는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알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막 14:18,20)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철저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찬식에서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막 14:28)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안아 주실 것을 보여 주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 십자가의 길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의를 붙잡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철저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갈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만약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의를 붙잡고 있다면, 끝내 회복되지 못한 가룟 유다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처럼 우리 또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십자가 길 앞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다시 한 번 내어 놓을 때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이다(막 16:7).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로 만 나의 보배 삼겠네."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③
(요한일서 2:15-17)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돈을 사랑하기를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디모데전서 6:10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 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옥을 가지고

자 하는 자에게 걸쭉까지도 가지게 하라"(마 5:40). 어느 누가 천국의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킨 한 부자 관원이 터 나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뒤에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눅 18:23). 이 사람은 상당한 부자였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대한 비용을 계산했고, 결국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사랑했지만 돈도 사랑했습니다. 삭개오는 부유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 나이다"(눅 19:8).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눅 19:9).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재능, 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러한 것을 어떤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7).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여 매 순간 십자가 보혈로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선교는 이제부터 시작



대학부7팀 이한솔, 조상미, 김예련-동말레이시아(카뎀) 7. 20~7. 28(8박9일)

대학부3팀 전영준, 이은미, 어 림-인도(마하쉬트트라 누식) 7. 26~8. 3(8박9일)

어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러 나라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동말레이시아와 인도를 다녀온 대학부 7팀과 3팀을 만나 보았다.

1. 선교지에 대해 설명해주면?

· 동말레이시아 카뎀은 상당히 외진 곳이라 강을 따라 내륙지방으로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까지 왜 왔냐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곳은 이반족, 말레이시아, 회교 등 민족별로 따로 빌리지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감리교회와 카톨릭교회도 있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은미)*

· 인도 나식은 힌두교인이 많았고, 섬기는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 많은 신들 중 하나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마라티 언어가 따로 있어서 힌두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에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김예련)*

2.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 나자까지 모든 선교심사를 재심으로 통과하여 내가 과연 선교를 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선교를 보내주시는 분은 주님임을 기억하며 모든 과정을 기쁨과 감사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조상미)*

· 9월에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 중국에 갈 예정이어서 여러 가지 준비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지역 준비에 집중할 수 없었으나 점차 주님이 저의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해주셔서, 어떤 일이 우선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 림)*

3. 전도하면서 느낀 점과 은혜를 나누면?

·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첫 선교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주님을 전하고 있는 나를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영준)*

· 많은 무슬림이 복음을 불평해 했는데 그런 그들을 보며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레이시아 이반족들을 보며 그 땅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 림)*

4. 다음에 선교 갈 사람들에게 조언 한다면.

·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팀원들이 기도하고, 영적 무장한 후에 들어가 때 사람들의 심령이 열리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기도는 정말 필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은미)*

· 특히 인도지역을 간다면 꼭 마라티어와 영어를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인디 어보다는 마라티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찬양 및 곡도 꼭 필요합니다. *(김예련)*

5. 이번 선교가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 5번째 가는 선교라서 어떻게 보면 소홀하게 준비할 수도 있었는데 준비과정부터 선교지까지 매순간마다 저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조상미)*

· 앞으로 중국에서 1년간 생활하게 되는데 그 곳에서도 선교사처럼 살아야겠다는 소명을 비추 주셨습니다. *(어 림)*

6. 끝으로 자유롭게 한다면.

· 동말레이시아에서 만난 영혼들을 위한 선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거룩한 책임감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곳에서 함께 했던 영혼들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미)*

· 다시 한 번 선교를 가게 된다면 완전한 자기부인을 통하여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전영준)*

· 전하는 자로서 주님의 삶과 계심과 그 능력을 중심하게 체험하게 되었고, 일상 생활 속에서도 더욱 기도 애야함을 결단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은미)*

취재 · 임동원 기자, 사진 · 정현모 기자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선교 마지막 날, 처음으로 선교에 참여한 팀원 중 한 집사님의 입을 통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다. 사실 처음 가는 나라라 가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날씨가 무척 더워 40도를 넘고 음식에 향이 강해 잘 맞지 않는다 등, 팀장으로 가는 선교인자와 내심 신경이 많이 쓰여 며칠간 인터넷을 뒤지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게 하셨다. 예약한 호텔도 렌터카도 모두 취소되었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우기’여서 선교사역에 많은 방해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시간인 오전과 오후에는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아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많은 영혼을 만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사역지에는 교회들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가끔 만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이 힌두교인들이었다.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 공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소 강성의 힌두교 청년이 선교를 방해하였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준 전도지까지 빼앗는 것을 보고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교구에서 서로 대화가 많지 않았던 집사님들과 한 팀이 되어 떠난 선교, 팀원들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선교준비와 경건회, 평가 예배를 통해 말씀 속으로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김광선(안수침사, 8교구)

십자가를 통한 구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등록 체험한 귀한 선교사역이었음을 고백하며, 부족한 죄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곳 선교 현장에 제가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는 광활한 평지로 구상된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환경만큼이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들의 높은 담장만큼 그들의 생활은 외부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았다. 정교를 믿는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했다. 하지만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닌, 행위로써의 구원을 믿는 그들이 안타까웠다. 때로는 그들이 믿는 정교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알아듣지 못해 논쟁을 할 수 없음이 오히려 감사했다.

짧은 언어로 일방적인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음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우리들이 전하는 전도지 내용을 함께 읽고 “아멘”으로 회답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었다. 방학이라 학교사역은 할 수 없어 아쉬웠다. 나는 그들에게 부족한 언어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열렬한 감당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 주실 것을 소망한다.

김정욱(권사, 18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일(월) - 9월 9일(목)	4교구 3팀	임태수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24일(화) - 8월 31일(화)	23교구 2팀	김이자
8월 24일(화) - 9월 1일(수)	15교구 9팀	김영중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8월 16일(월) - 8월 24일(화)	8교구 2팀	윤병식

여름수련회

중등부 여름수련회

주님을 향한 나의 조그마한 마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며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시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니.

깨뜨릴 욕망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영광대로 날 빛으로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이 고백처럼 중등부 학생들 또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다.

은혜롭게 펼쳐진 2박 3일간의 여름수련회를 마무리하기 직전.

전국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도와 작은 무릎을 꿇는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 여름수련회에 참여하여 주님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증은 기쁨에, 세상 것에서 멀어지고 제이만을 추구했던 어린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부흥회를 비롯하여 찬양과 경배시간, 전로역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키고자 준비하시는 주님, 앞으로는 어떤 제가 믿음 안에서 많이 성장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윤희진**

· 수련회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생각하게 해 주셔서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을 때 제대로 회개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으로 계속 주님 데 나아가며 주님과 더 교제하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윤희진**

· 부흥회 때 저를 진심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신 것에 대해 참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입니다. 제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지만, 모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최희원**

· 사랑하는 예수님, 저희 아바에게 구원의 빛을 내려주셔서 저희 가족을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끌어 주세요. 또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신애영**

· 주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은 살아 계시니까요. **최예진**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넘치는 은혜 십자가 은혜, 고등부 여름수련회

· 저를 여름수련회에 참석했다. 항상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과, 괴롭고, 속상했던 일들을 잊고 은혜를 받으려 나왔다. 아직 회개를 다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었는데 이번 수련회 부흥회를 통해 조금은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느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했던 저녁 부흥회 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큰 은혜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영육간에 감동함을 얻었다. **장지혜**

· 수련회의 특강 시간에 성경이 우주에 기초가 된다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뜻, 그리고 성경의 책 권수와 의미 등등에 관해 들었는데 그 동안 내가 살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어서 의미가 있었고, 또 기억에 남는다. **박지홍**

· 두번째 날 부흥회 시간에 고3, 고2 선배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그리고 언니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 부흥회 시간에 빵을 떼어 서로에게 주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평소엔 기도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들이 감사했다. **남경숙**

· 올해 고3이라서 이번이 고등부에서 참석하는 마지막 수련회였다. 수련회가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수련회 때 찬양할 특송을 준비했다. 특송을 연습했던 시간과 그 특송을 위해 기도해 준비했던 시간들, 그리고 여름수련회의 부흥회 때 고3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특송을 부르게 된 것들이 전부 기억에 남는다. 마지막 수련회에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다. **양정호**



· 학생회 프로그램과 공동체 훈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두 프로그램은 준비하면서 학생회들끼리 서로 기도로 준비하며 프로그램 코스 및 순서들을 짜면서 걱정도 많이 했었다. 학생회에서 준비하는 마지막 수련회 프로그램이었는데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즐겁게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감사했다. **이찬용**



새가족통신과정 수료자

예수님의 은혜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로였고,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주일은 당연히 교회에 가는 것으로 알고있고, 중등부 부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 시절의 이유 없는 반항으로 주님을 멀리하였고, 아예 잊고 살았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직장이란 직장, 사업이란 사업, 모든 것이 일상천리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거처처 접대, 술과 담배, 유흥과 무절제한 생활이 일상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인불명의 수년 간의 심장 통증! 모든 진료와 검사를 거쳐 심장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던 사업의 실패... 그러면 그릴수록 저는 술에 더 의지했고, 소위 말하는 알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저는 주님께서 받아오는 것을 진정 몰랐습니다. 아내의 20년 넘게 이어온 기도 덕분에인지, 진정 주님의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셨는지, 한 집사님의 전화로 저는 30년 만에 주님 곁으로 한 발 다가서게 되었고, 알콜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심장 통증도 한결 좋아졌고, 건강도 많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때부터 저의 기도제목은 "주님의 자식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행복 한 것이 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후회스러운 반면 또한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즈음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가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편 119:105)라는 말씀이 우리집의 가훈이 되었습니다.

최광수(성도, 새가족통신과정 수료자)

*새가족통신과정 문의 / 새가족등록실(본당 로비 우측)

성경암송의 기쁨 그리고 은혜

금요찬양집회는 모든 연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 십자가 복음이 생생한 금요찬양집회 중 성경암송시간은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더욱 느끼게 해 준다. 특히 지난 시간 예배다부 성경암송팀 최영동 집사님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동아인임에도 그는 말씀에 열매 맺어 말씀을 주는 은혜를 암송했다. 그를 직접 만나 은혜의 손짓을 나누었다.



어떻게 준비했나요?

예배다부 성경암송팀은 지난 4월 11일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야고보서 1장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8명이 시작했었고요 한두 명씩 직장관계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던 차에 온 여인 집사, 황세연 집사, 김소희 집사와 저 이렇게 4명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매주일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씩 연습했어요. 암송할 말씀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주파선으로 연습 또 연습, 집에 가서도 열심이 연습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예배다부 성경암송 발표가 7월 9일이었는데 성경암송팀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저는 7월 6일에 선고를 가고 또 다른 팀원은 직장 관계로 결국 주님께서는 8월 6일로 정해 주셨죠.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순종하며 열심이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하면서 느낀 은혜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주님의 은혜가 계실 것입니다. 암송을 준비하며 성경이 살아 계신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더욱 말씀을 붙들며 살게 되었고,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성경암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암송할 성경구절을 놓고 먼저 기도하 말씀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암송할 말씀을 선택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연습하면 됩니다. 성경암송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Let the blind say I can see, it'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눈먼 나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네.



Hosanna Hosanna to the lamb that was slain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Hosanna Hosanna Jesus died and rose again
호산나 호산나 예수 부활하셨네.

Into the river I will wade, there my sins are washed away,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나의 죄 씻겼네.

From the heavens mercy streams, of the saviour's love for me.
하늘에서 임한 은혜, 구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I will rise from water deep, into the saving arms of God,
하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는 깊은 강에서 일어설리라.

I will sing salvation songs.
나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리.



Jesus Christ has set me free.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자유를 주셨네.

Hosanna Hosanna to the lamb that was slain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Hosanna Hosanna Jesus died and rose again
호산나 호산나 예수 부활하셨네.

- by Reuben Morgan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과과정	교구	인도자
991	홍소영		2	안분조
992	손인호		9	
993	이영미		9	
994	손영혜	초등2부	9	
995	이병주	양육반	1	은혜진
996	정환분	양육반	19	김신미
997	김서현	양육반	1	김정자
998	조기용	초등2부	1	김원홍
999	이기억	양육반	10	오재일
1000	박윤미	작은반	1	권영희
1001	김정숙	작은반	1	김구경
1002	김신환	작은반	11	최영옥
1003	김다혜	고등부	8	송주은
1004	고기현	작은반	18	황선혜
1005	이상은		18	황선혜
1006	고준혁		18	황선혜
1007	고준서		18	황선혜
1008	이혜영	양육반	20	김복희
1009	허예린	중등부	7	이영애
1010	이재은	통신반	3	문경숙

충청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